



박소현의 섹.시.토크

결혼 3년차인 그들 부부는 올 해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결혼한 첫 해에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피임을 했고 그 다음해에는 둘 다 일이 너무 바빠 피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년차에 접어들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압력이 갑자기 가세했다. 누구 만나도 맨 처음 하는 말은 언제나 '에는 언제 가질 거야?'였다. 아내의 나이가 서른세 살로 접어들었다는 사실도 더는 출산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결혼 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뜨거운 부부라 일주일에 두세번은 꼭 잠자리를 했다. 시댁이나 친정에 가 있어도 사흘 밤을 그냥 넘기는 일이 없었고 아무리 일이 많고 고단해도 잠자리에는 소홀했던 적이 없었다. 그런 부부이니만큼 2세 계획에는 그다지 걱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막상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하자 괜히 긴장이 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었다. 배란기가 다가오자 아내의 남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술 마시지 말고, 야근도 하지 말고, 인스턴트도 먹지 마, 몸에 좋은 것만 먹어." 이왕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자 싶어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몸도 피곤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배란기간이 시작되자 첫날부터 일찍 퇴근해서

잘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늘 하던 섹스인데, 늘 좋기만 하던 섹스인데 평소처럼 흥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쓰다 억지로 받기는 했는데 이번엔 사정이 안 된다. 아내는 계속 사정을 했으나고 묻는데 남편은 웅만 쓰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를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평소에



는 키스만 해도 흥분하던 몸이 이번에는 꿈쩍도 않는 것이다. 그의 반응이 늦자 아내 역시 평소와 다르게 채근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섹스가 두 사람이 나누고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니 흥분이 될 리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사정을 해

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강박이 오히려 사정은커녕 받기조차 막는 것 같았다. "잘 안 돼." "편하게 해 봐." "긴장 안하려 해도 긴장이 되는 걸 어떡해. 아무래도 콘돔을 안 써서 그런가봐." 그렇게 해서 그날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

"잘 안 돼." "편하게 해 봐." "긴장 안하려 해도 긴장이 되는 걸. 아무래도 콘돔을 안 써서 그런가 봐."

다. 인류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시작된 섹스임에도 불구하고 섹스와 자식을 연결 짓는 순간, 섹스는 이미 섹스가 아닌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또 이들이 지났다. 그날 밤 아내의 손이 슬그머니 남편의 몸을 더듬는다. 아내의 손이 닿자마자 남편의 몸은 자연스레 긴장하기 시작했다.

후손 남기기 위한 숙제는 괴로워

"오늘은 콘돔을 쓰자." 아내의 말에 놀라는 남편. "그럼 안 되잖아." "이러다 우리 부부관계마저 잘못될 것 같아. 그냥 해.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하면 되잖아."

"그래도 괜찮잖아?" 아내의 말을 듣자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내의 손길에 다시 흥분을 시작한 남편. 그날따라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잠자리에 임했다. 직접 콘돔을 꺼내주기까지 했다. 그날 밤, 임신 이야기를 꺼내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만족스런 섹스를 끝낸 두 사람은 침대에 나른하게 누웠다.

제대로 된 섹스를 끝내고 나자 남편의 마음엔 멧쩍음과 미안함이 함께 찾아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됐을까?" "긴장해서 그렇지 뭐. 너무 걱정 마." "미안해." "아니야, 다 잘 됐어." "잘 됐다니 무슨 말이야?" "아내는 돌아누우며 싱글 웃었다. "실은 내가 콘돔에 구멍을 냈거든." <연예칼럼 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4년 만에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됐다.

8일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덩달아 올림픽에 출전한 태권전사들의 이름도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선수의 야구 대표팀에 뒤늦게 합류한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다.

올 시즌 12승으로 프로야구 다승왕을 달리고 있는 윤석민은 당초 대표팀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

KIA 윤석민, 올림픽 야구대표팀 '막차' 합류

지 못했다가 컨디션 난조에 빠진 임태훈(두산·투수)을 대신해 구사일생으로 대표팀에 승선해 화제가 됐다.

올림픽 대표팀 첫 메달을 노리고 있는 전남야구 출신의 사격 김찬미, 한국 첫 수영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박태환, 역도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장미란 등이 네티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번지 점프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5일 나주의 한 리조트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30대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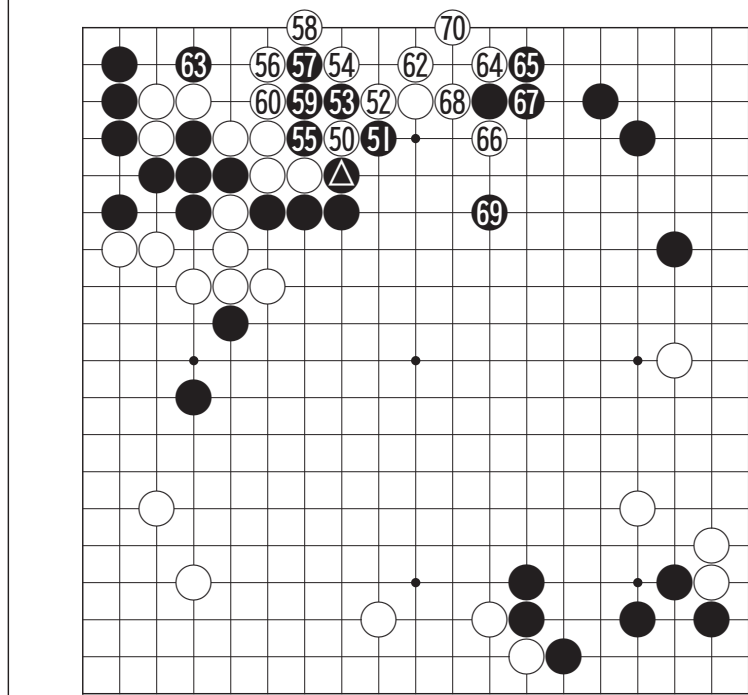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성토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화로 무너져 내린 국보 1호 승례문도 다시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6일 승례문 복구를 위한 석축 울타리 해체 작업 중 지하 병커가 발견되면서 네티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병커는 한국전쟁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2.3m, 너비 2.1m, 길이 3.3m 규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5일 대체 선수로 야구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한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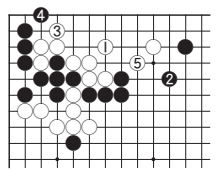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 바둑대회

‘처참한 두집내기’

4회전 3국 4보 (50~70)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참고도>

흑 ▲가 두터우면서도 아픈 자리였다. 김영수 5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반면 허우석 5단은 짧은 표정으로 50으로 찢혀갔는데 이 수가 또 감정에 치우친 수였다. 이 수로는 억울하지만 '참고도'의 백 1로 물러서고 흑 2에는 3을 선수한 다음 5로 지켜줘야 했다. 허우석 5단은 목 하는 기분에 50으로 막아 버렸으나 김영수 5단이 기세 좋게 51로 찢혀오자 견잡을 수 없이 모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흑 55로 패러냈을 때 백 56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도 쓰라리다. 이 수로 59에 단수치면 흑이 60으로 끊어 되모는 수가 있어 안된다. 결국 백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며 62로 겨우 연결해갔으나 흑 63으로 계속해서 집을 없애며 추궁하자 흑 대마가 살기 위해 눈물겨운 고행을 계속하게 된다. 흑은 63, 65 등 집이 되는 수를 두는 동안에 백은 70으로 겨우 두 눈을 내고 있다. 형국이 그야말로 처참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정상 9단, 국수전 포문 열어

박정상 9단이 6일 제52기 국수전 본선 토너먼트 16강전 본선 첫 대국에서 박영훈 9단을 상대로 220수 끝에 백불계승을 거두며 국수전 포문을 열었다. 이날 승리한 박 9단은 김기용 4단과 고근태 6단의 대국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기사와 지난 대회 4강 진출자 4명을 포함, 총 16명이 경합을 벌이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국수전 총 상금은 2억 5천만원으로 각자 제한시간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4강 진출자에게는 차기 대회 본선 시드가 부여되며, 우승을 차지한 기사에게는 4천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오광복기자 kroh@>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음 7월 8일 庚辰)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Each row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the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text about skin care products.

A large table with 4 columns and 2 rows. The columns are: '굿모닝 잉글리쉬 <1220>', '오하오우 니혼고 <1220>', '니하오 쑹구워 <197>', and '한자 이야기 <837>'. Each cell contains language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text, and Korean explanations.